



[뉴스]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40% 급등
02



Economy

코스피	3015.06 (0.00)	코스닥	990.54 (0.00)
금리 (미국 3년)	1.795 (-0.018)	환율 (USD-달러)	1182.40 (-4.40) (15일)

‘國產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박차... 제약 주권 ‘눈앞’

일상회복, 신약에 달렸다

① K-백신 어디까지 왔나

SK바사 ‘GBP510’ 임상3상 내년 1분기 중 상용화 기대
민관 연합군 ‘mRNA 컨소’ 내년 긴급사용 목표 개발 박차

국내 기업들은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가 가장 먼저 제조합 백신의 임상3상에 진입했고,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회사와 모더나 같은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도 나섰다. 다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관 협업으로 속도 높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제조합 백신) ▲셀리드(바이러스벡터백신) ▲진원생명과학(DNA 백신) ▲제넥신(DNA 백신) ▲유바이오로직스(제조합 백신) ▲큐라티스(RNA 백신) ▲HK이노엔(제조합 백신) ▲아이진(RAN 백신) 등 8개 업체의 코로나19 백신 9개 후보물질이 임상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임상3상에 진입한 곳은SK바이오사이언스다.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말 국내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항원 백신 ‘GBP510’의 임상3상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했다. 국내 14개 기관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내외 성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측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임상3상 중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내년상반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식약처에 유코백-19의 임상 3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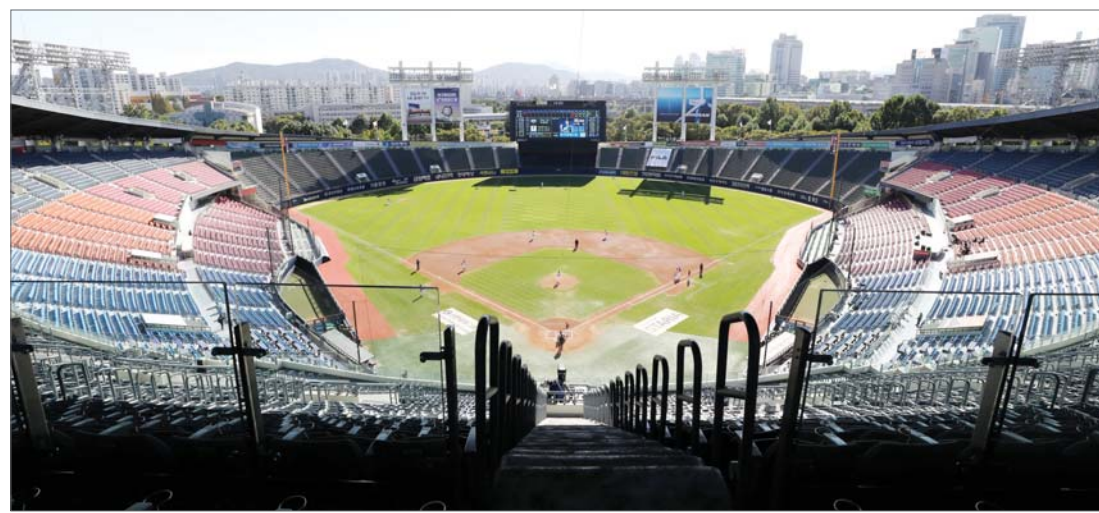
신청했다. 이번 임상3상은건강한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유코백-19를 2회 접종한 후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17일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2상 임상참여자에게 투약을 완료했으며, 임상2상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큐라티스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셀리드 등의 백신 개발은 임상1·2상에 머물고 있다.

민관 협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 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이 지원하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민 접종 가능한 국산 mRNA 백신을 생산해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전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즈 분량(5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인 큐라티스·아이진·진원생명과학과 백신 생산업체인 보령바이오파마 역시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국내 바이오벤처가 주축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수도권 4개구장, 관중 입장 허용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밝힌 코로나19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라 19일부터 수도권 4개구장에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뉴스

社告

메트로경제 ‘2021 제약·바이오포럼’

신약개발, 플랫폼이 중요하다

지금 인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이 인류를 코로나19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약의 ‘주권 확보’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흡입형,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벤처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K-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2021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변화된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주 제 :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 일 시 : 2021년 10월20일(수) 14:00~16:3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및 웨비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제한, 온라인 방송으로 병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기조강연 :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 연 1 :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 강 연 2 : 김태순 라텍셀 대표이사(前 신테카바이오 사장)
- 강 연 3 :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 참여방법 :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안내
- 등록 및 문의 : 2021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26,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억제’ 급급한 당국, DSR 조기 도입 예고

금융 이슈리포트

농협·신한銀 등 전세대출 재개 집단대출, 공동대책 마련 추진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중단됐던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대신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공급을 정상화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됐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신한은행도 현재 5000억원이었던 대출모집 한도를 18일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점별 월별 한도를 두고 관리해온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배분된 월별 가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규 취급했지만 18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영업점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보다 전세대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시행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논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웨이퍼 공급난에 메모리 비상

메모리 반도체도 웨이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준은 아니지만, 웨이퍼 공급난이 장기화 되면 메모리도 ‘쇼티지’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업체들은 최근 웨이퍼 사용량을 10~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웨이퍼 공급난이 현실화한 탓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대폭 늘면서 웨이퍼 수급 상황도 빠르게 악화하고, 결국 웨이퍼 사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언

이다. 실제로 웨이퍼 출하량은 연일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전장용 반도체에 쓰이는 8인치 웨이퍼만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하반기부터는 12인치 등 웨이퍼 역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직후 증설을 시작한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시작하고, 메모리 팹도 더 늘어날 예정인 만큼 공급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대장동·고발사주 TF 첫가동...尹 조준
▲ 송영길 “이재명,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세로 국감 임해달라” /사진 뉴시스

▲ 이재명측 “대장동 공문 서명은 업무 보고 절차” 일축
▲ 윤석열 측 “대장동 부실 수사 김오수, 감찰해야”



▲ 안철수, 대장동 특검 촉구... “이재명 친일프레임 소환” 비난
▲ “정직 2개월” 판결尹, “날 흠집내려는 거대공작 있다” /사진 뉴시스